"책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을"

서연호
고려대 국문과 교수

일본에 갈 적마다 목격하는 일이지만, 확실히 일본인들의 독서열이 높다는 사실이다. 동경이든 어느 시골 도시에서든 지하철이나 전철을 타고 있노라면, 대부분의 승객들이 손에 손에 책이나 잡지 혹은 신문을 들고 읽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서점에 들어가서 일부러 느긋하게 머물면서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보다 역시 무엇이든 사들고 서점을 나가는 사람이 절대로 많은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독서열을 위한 환경이나 분위기 또한 쉽게 간과할 수 없다. 지하철이나 전철을 타면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차분하다. 설비가 우수한 철로와 전동차로 인하여 승객의 몸체는 별로 흔들거리지 않는다. 실내를 오가며 물건이나 신문을 파는 사람도 없고, 큰 소리로 지껄이거나 옆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일본에서는 어린아이들조차도 차내에서 뛰어놀거나 떠들거나 울부짖는 일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만큼 그 부모들이 공중도덕을 위해 아이들을 철저히 단속한다는 말이다. 더욱이 커다랗게 대중가요 방송을 한다든가 뉴스를 방송하는 일은 없다.

어느 서점에 가도 친절하고 서점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서비스정신을 갖추고 고객을 맞이한다. 찾고자 하는 책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점원에게 말하면 친절하게 다가와서 얼른 찾아주면서 유사한 서적으로 최근에 출간된 다른 책의 정보까지 자상하게 일러준다. 준비된 책이 없으면 고객에게 도리어 미안하다고 인사한다. 그러면서 주소나 전화번호를 일러주시면 곧 연락드리겠노라고 말한다. 고객이 외국인이면 연락이 될 만한 내국인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일러주시면 일주일 이내에 책을 구하든지 정보를 알아보고서 연락을 해놓겠노라는 말도 빠뜨리지 않는다.

일본에서 대학강의를 하면서 대학생들 역시 부지런히 독서하는 모습과 습관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공서적은 물론이고 읽어야 할 교양서적, 심지어 최근에 나온 이름난 책은 거의 다 읽고 있었다. 책에 관하여 내가 수차 질문하였으나 대체로 조심스럽게 답변하였다. 나는 그들이 미처 읽지 않고 대강의 정보만으로 짐짓 대답하는 줄로 여기고 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다시 질문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책의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었다. 과연, 그들의 놀라운 겸손과 내적 충실이여!

"자네들은 어째서 책을 열심히 읽는가?"

대학생들은 나에게 답변하였다.

"책을 읽지 않으면 일본에서는 남에게 뒤떨어지고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인들에게는 일상사요 통념화된 사실을 이처럼 장황하게 소개하는 기본 취지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후진성과 낙후성을 반성하고 일깨우기 위한 고언이다. 우리 사회는 50년대 후반부터 출판문화와 독서문화의 수립을 구호로써 외쳐온 것으로 기억된다. 어언 35년의 세월을 허송한 셈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역설적으로 책을 읽지 않고서도 그런대로 살아가는 사회, 책을 읽는 것이 오히려 시간의 낭비가 되는 정체된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자생적인 공동체적 체험이나 연구성과를 출판화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거짓스럽게 도용하는 인습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멀고도 아쉬운 출판문화와 독서문화여!

출판저널
1992년 1월 20일 제98호
격주간·매월5,20일발행
THE KOREAN PUBLISHING JOURNAL, biweekly

뉴스 2 분야별 발행종수 문학이 으뜸 • 외
표지인물 4 국사편찬위원회 박영석 위원장
특집 6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청소년들의 책읽거
유종호 / 조대현 / 김병규
자료 9 겨울방학에 읽을만한 책
서평 10 송석래 「항가와 만엽집의 비교연구」 — 김대행
이기백 「한국사상의 재구성」 — 홍승기
11 정옥자 「조선후기지성사」 — 박용옥
김종현 「근대일본경제사」 — 김영호
12 서병훈 「다시 시작하는 혁명」 — 강문구
한사연 「한국사회와 지배이데올로기」 — 서재진
13 한정선 외 「현대와 후기현대의 철학적 논쟁」 — 이영호
박완희 「한국의 버섯」 — 김병각
확대서평 14 한국대표시인 100인선집 — 이경호
화제의 책 15 ILO가입 계기로 본 관련도서
출판시론 16 '교류'가 아니라 '통합'이어야 한다 — 김언호
출판화제 18 북한관련도서, 어떤 것들 나와 있나
화제의 인물 19 을지서적에 외화코너 차린 在美서점인 조승훈씨
세미나 20 2천년대 출판진흥정책의 방향모색
김경동 / 백승길
이 책 그 사람 22 「섬에는 옹달샘」 낸 김석희씨
「해바라기」 낸 안혜숙씨
23 「일어서는 풀」 낸 이재인씨
「땅에서 하늘로」 낸 김정환씨
리뷰 24 출판관련단체 어떤 것 있고 무슨 일 하나
자료 27 이달의 청소년도서
해외출판 28 문예만화 장르 개척하는 독일출판 • 외 — 이희재
세계의 책 30 '동성애' 파헤친 토마스 만 연구서 • 외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
42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안내

표지사진 / 김홍진